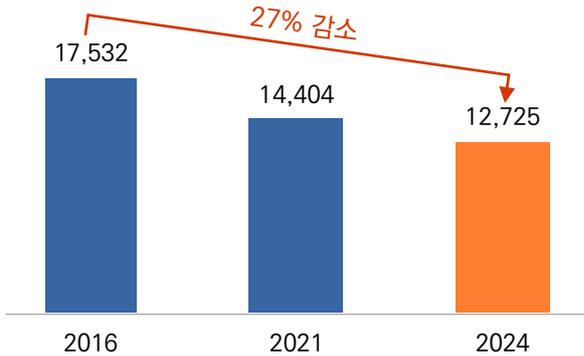




## [2024 노숙인 실태] 노숙인 규모,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!

- 보건복지부의 '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'는 2016년,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, 노숙인 등의 규모, 건강 상태, 노숙 원인 및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.
- 노숙인 전체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17,532명, 2021년 14,404명, 2024년 12,725명으로 집계돼, 지난 8년간 2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전체 노숙인 등\* 규모 추이 (명)



※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,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, 2025.06.10.

\*노숙인 등 정의: ①거리노숙인(거리노숙, 노숙인종합지원센터·일시보호시설 이용자), ②시설 노숙인(자활·재활·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), ③쪽방주민(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·관리를 받는 주민)

## 거리노숙인, 3명 중 1명 이상은 '실직'으로 노숙 시작!

- 거리노숙인들이 노숙을 하게 된 계기를 묻은 결과, '실직' 때문이라는 응답이 36%로 가장 많았고(24년 조사), 이어 '이혼 및 가족해체' 13%, '사업실패' 11%, '주거지 상실' 8% 순이었다. 거리노숙인 3명 중 1명 이상은 '실직'으로 거리노숙을 시작하는 셈이다.
- '실직' 비율은 이전 조사(2021년)보다 감소했는데 반해 '이혼 및 가족해체'와 '주거지 상실' 사유는 2021년 대비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.

[그림] 거리노숙 계기 (거리노숙 경험자, 상위 4개, %)



※출처 : 여성가족부,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, 2025.04. (19~74세 성인 6,000명, 중·고생 5,000명, 개별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집합조사, 2024.10.21.~12.31)